

종신 등 사망보장 보험료 짊짊↓... 연금보험료 소폭↑

오늘부터 9차 경험생명표 적용

男 81.4→83.5세, 女 86.7→88.5세
8회比 평균수명 1.8세, 2.1세 확대
기존 가입자는 개정영향 안받아

오늘부터 평균수명이 연장된 새로운 경험생명표가 적용된다. 앞으로 종신보험, 정기보험 등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지금보다 저렴해진다. 반대로 연금보험은 보험료가 소폭 오를 수 있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제9회 경험생명표가 4월 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평균수명은 남성 81.4세→83.5세, 여성 86.7세→88.5세로 확대된다.

경험생명표는 보험에 가입한 사람을 대상으로 생존·사망 현상을 관찰한 통계 자료를 이용해 보험요율산출을 위한 성

<경험생명표>

회차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시행시기	1989 ~ 1991	1992 ~ 1996	1997 ~ 2002	2002 ~ 2005	2006.04~2009.09	2009.10~	2012.07~	2015.04~	2019.04~
남자	65.75세	67.16세	68.39세	72.32세	76.4세	78.5세	80.0세	81.4세	83.5세
여자	75.65세	76.78세	77.94세	80.90세	84.4세	85.3세	85.9세	86.7세	88.5세

/자료=보험개발원

별, 연령별 사망률을 계산한 표를 말한다. 보험개발원이 각 보험사 통계를 기반으로 산출하고 금융당국이 심사한다.

지난 1989년 처음 도입된 이후 여덟번에 걸쳐 개정될 때마다 평균수명은 매년 증가했다. 이번 아홉번째 개정으로 경험생명표는 지난 2015년 발표한 8회 경험생명표 대비 각각 2.1세, 1.8세 늘어났다.

각 보험사는 경험생명표를 보험료 산정, 책임준비금 및 배당금의 결정, 언더라이팅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통상적으로 평균수명이 증가하면 예

정사망률이 감소하고 보험사가 보험료를 오래 운용할 수 있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종신보험, 정기보험 등의 사망 관련 보험료는 내려간다.

반면 생존담보의 위험률은 상승하고 가입자가 장수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기간도 길어지기 때문에 매달 보험금을 받는 연금보험이나 암보험, 건강보험 등은 보험금 지급액이 줄거나 보험료가 오른다.

실제로 지난달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삼성생명, 신한생명, 현대생명, 농협생명, 국민생명, 신한생명,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통상신(新)경험생명표 적용과 동시에 상품 개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상품 교체를 통한 보험료 인하

개 특약에 반영했다.

다만 기존 가입자는 이번 경험생명표를 반영한 상품 개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기존 가입자는 가입 당시 경험생명표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보험료는 9회 경험생명표에 따라 체결되는 신규 계약부터 적용된다.

일각에서는 평균수명 연장으로 보험료가 인하되더라도 소비자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희연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통상신(新)경험생명표 적용과 동시에 상품 개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상품 교체를 통한 보험료 인하

체감은 쉽지 않다”며 “일반화시킬 순 없지만 대부분의 상품 개정이 보험사에게 유리하게 이루어진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뿐만 아니라 보험사의 실질적인 손익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됐다.

김 연구원은 “종신·중대질병(CI)을 중심으로 성장한 곳은 이론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하지만 실질적인 손익 영향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전략적으로 상품 개성과 담보 확대를 통해 건강·상해 등 기타 보장성 부문 신계약 판매 노력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경험생명표 변화는 예상됐던 요인이라 보험사들도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손익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여승주 한화생명 사장, 中 보아오포럼 참석

한화생명은 여승주 한화생명 사장이 대표이사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지난 26일부터 중국 하이난성 중하이시에서 열린 보아오포럼에 참석해 활발한 글로벌 네트워크 활동을 펼쳤다고 31일 밝혔다.

여 사장은 지난 29일 오전 보아오포럼 출범 이래 처음 개최된 ‘한중 최고경영자(CEO) 다이얼로그’에 참석해 디지털금융을 적극 강조했다.

그는 “전통적인 금융회사는 기술발전과 시장환경, 고객니즈의 빠른 변화

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적극적인 상호 교류가 필요하다”며 “다양한 스타트업, 프라이빗 에쿼티(PE)·벤처캐피탈(VC) 등 투자자, 학계와 정부기관, 글로벌 파트너들과도 장점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오픈 이노베이션을 끊임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7일 여 사장은 하이난성 선단양 부성장을 만났다. 중하이시의 민속마을인 사메이촌(沙美村)에서 하이난성의 자유무역항(FTZ) 프로젝트와 투자 기회에 대해 토론했다. /김희주 기자

KEB하나銀, 항공기리스社 AAC와 MOU

본격적 글로벌 사업영역 확장 일환 연간 10억 달러 항공기금융딜 소개

KEB하나은행은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해외 항공기리스 전문회사인 ‘아레나 에비에이션 캐피탈(Arena Aviation Capital·AAC)’과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2015년부터 주선금액 기준 11억달러, 총 25건으로 국내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많은 해외 항공기금융 딜을 주선해온 KEB하나은행이 본격적 글로벌 사업영역 확장을 위해 해외 항공기금융 주선 시장에서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AAC는 지난 2013년 항공기 임대시장 세계 1위 항공기전문 리스사 에어캡(AerCap)의 CTO(Chief Trading Officer) 출신 등 20년 이상 업계경력을 보유한 직원들이 설립한 네덜란드 소재 항공기전문 리스회사다. 총 20억달러 규모의 60여대 항공기를 운용·관리하고 있으며 KEB하나은행과 총 4억달러 규



KEB하나은행은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해외 항공기리스 전문회사인 ‘아레나 에비에이션 캐피탈(Arena Aviation Capital·AAC)’과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왼쪽)이 패트릭 덴 엘젠(Patrick Den Elzen) AAC 대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EB하나은행

모의 항공기금융 4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바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향후 연간 약 10억달러 이상의 신규 항공기금융딜이 KEB하나은행을 통해 국내에 소개될 전망이다. KEB하나은행은 연내 AAC 지분투자를 통해 주주지위를 취득할 예정이며 향후 AAC가 추진하는 항공기금융 주선에 우선권을 확보하게 된다.

또한 KEB하나은행은 이번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을 계기로 일본 동경지점

을 JOL방식 항공기금융 허브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은 “이번 파트너십 구축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성장 중인 일본의 JOL 항공기금융 시장에 대한 주도권 확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다시 한번 KEB하나은행의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KEB하나은행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글로벌 수익원 창출을 위한 사업영역 확장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민영 기자 hong93@

신한은행, 키자니아 은행체험관 리뉴얼

신한은행은 4월 1일부터 어린이직업 체험테마파크 키자니아에서 운영 중인 은행체험관을 리뉴얼 오픈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2016년 3월부터 키자니아 서울·부산에 은행 체험관을 운영하면서 어린이들에게 통장 개설, 현금카드 발급 등 고객 체험과 다양한 고객 응대 미션을 통한 은행원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새 단장한 은행 체험관은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형 콘텐츠를 대폭 강화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어린이들이 키자니아 신한은행 체험관에서 은행원 직업 체험을 하고 있다.

셀트리온헬스케어, 감사시간 53% 증가

>> 1면 ‘회계사 전성시대...’서 계속

실제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전년보다 감사시간이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인력 역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또 에이치엘비(66%), 셀트리온제약(70%) 등도 감사시간이 크게 늘었다.

코스피 상장사의 특징은 감사시간보다 인력이 가파르게 늘었다는 점이다. 또 전문성 있는 감사인이 재무제표를 꼼꼼하게 살펴봤다.

시총 상위 20개 기업 감사에 투입된

회계사는 1인당 평균 286시간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301시간)보다 오히려 줄었다.

대형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는 “대기업일수록 고급 인력의 투입 시간을 늘려 실수가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회계사는 담당이사(파트너 회계사), 등록 공인회계사, 수습 공인회계사로 나뉜다. 파트너 회계사가 가장 경력이 많고, 몸값이 높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이대훈 NH농협은행장, 직원들과 ‘점심 소통’

근무 애로사항 청취 ‘스킨십 경영’

NH농협은행은 지난 29일 서울 부암동 인근 식당에서 은행장과 직원들이 함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함께하는 ‘은행장과 함께(With CEO)’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행사의 테마는 ‘첫 근무의 설렘’으로 올해 중앙본부 신규 전입 직원을 대상으로 개최됐다. 참석 직원들은 이대훈 행장과 함께 점심식사를 나누며 격의 없는 소통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행장은 참석 직원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인사를 나눴고, 직원



이대훈 NH농협은행장(가운데)과 직원들이 지난 29일 서울 부암동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함께하고 있다.

들의 근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특유의 스킨십 경영을 선보였다.

‘은행장과 함께(With CEO)’는 평소

직원들을 만날 때 ‘밥 한번 먹자!’라며 친근감을 표현하는 이 행장의 수평 경영 철학에 따라 기획됐다. 지난해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농협은행은 올해로 2년 차를 맞는 ‘은행장과 함께(With CEO)’가 단순한 최고경영자(CEO) 소통채널을 넘어 워라벨 조직문화 정착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이 행장은 오찬 자리에서 “CEO로서 다양한 직원들과 활발한 소통의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조직문화 혁신의 첫걸음”이라며 참석한 직원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안상미 기자